



VALUE UNIVERSE

VALUE TIMES

2019년 01월 셋째주



와이랩



빅팟게임즈



브릭앤



딜라이트



아스타



웹툰 '일진이 사나워' 네이버 웹툰 연재

■ 웹툰 '일진이 사나워' 네이버 웹툰 연재

- 고품질 학원 로맨스 웹툰 '일진이 사나워'
- 글 : 강연환 작가 / 그림 : 김현아 작가
→ 와이랩 아카데미 출신의 실력파 신인
- 평범한 여고생 유정이 학교에서 무섭기로 유명한 동급생 도준혁의 고백을 얼떨결에 수락하며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린 작품
- 캐릭터와 스토리에 힘입어 업로드된 1화에 대한 독자들의 호평
- 와이랩의 대표 '슈퍼스트링 프로젝트' 라인업 작품들과 또 다른 스타일의 웹툰



팡스카이, '초한지M' 사전등록 개시

■ 팡스카이, '초한지M' 사전등록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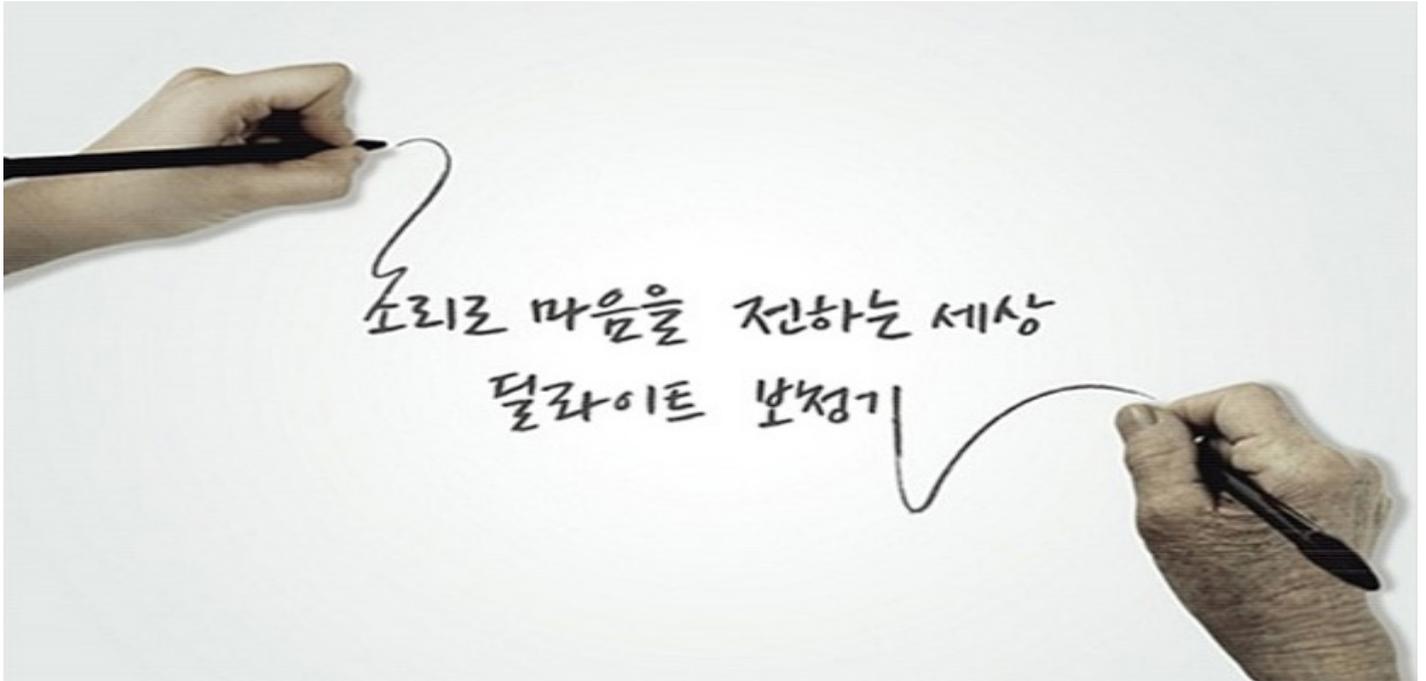
- 모바일 Full 3D MMORPG '초한지M'
- 배경 : 소설 '초한지'의 스토리와 세계관
- 플레이어는 항우와 유방의 치열한 쟁패전 속으로 들어가, 캐릭터를 육성하며 새로운 스토리를 즐길 수 있으며 주요 스토리마다 박진감 넘치는 컷신을 넣어 스토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제작
- 사전등록이벤트 : 참여자 전원 게임 출시 이후 사용할 수 있는 10만원 상당의 게임 내 아이템 지급



‘FCC Seoul 2019’, 디자이너·소비자·투자자 연결한 ‘패션 플랫폼’ 출범

■ ‘FCC Seoul 2019’, 디자이너·소비자·투자자 연결한 ‘패션 플랫폼’ 출범

- 신개념 패션 플랫폼 ‘FCC Seoul 2019(Fashion Crowd Challenge)’
- 주관사 : 크라우드즌
- 패션 디자이너가 자신의 작품을 출품하고, 소비자가 본인의 개성에 따라 선호 디자인을 고른 후, 투자자가 선발된 디자이너 상품 생산에 투자해 제품 판매까지 지원하는 신개념 패션 플랫폼
- 디자이너, 소비자, 투자자를 연결한 선순환 구조
 - 디자인부터 판매까지의 원스톱 방식
- 패션 IP 소싱 플랫폼 완성할 계획
- 일반인 평가와 생산비 투자 과정을 거쳐 4월 상품 판매 시작할 예정



CES 2019 참가 “신기술 장착으로 美 시장 공략”

■ CES 2019 참가 “신기술 장착으로 美 시장 공략”

-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2019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참가
- 새로운 RF 무선 충전 방식의 보청기를 선보여 화제
 - 무선 충전 시스템 : SK텔레시스와 에너지스(Energous)와의 협업
- 미국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인증을 획득
 -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판매될 예정

※에너지스

무선 충전 분야에서 진보된 방식을 선보이는, 나스닥에 상장된 업체며 특히 새롭게 선보인 원거리 무선 충전 기술 ‘와트업(WattUP)’은 혁신적인 기술이고 무선이면서도 충전 패드에 완전히 밀착시켜야 했던 기존 무선 충전 방식과 달리, 라디오 주파수(RF)를 기반으로 보청기와 같은 소형제품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충전패드에 올려놓기만 하면 충전을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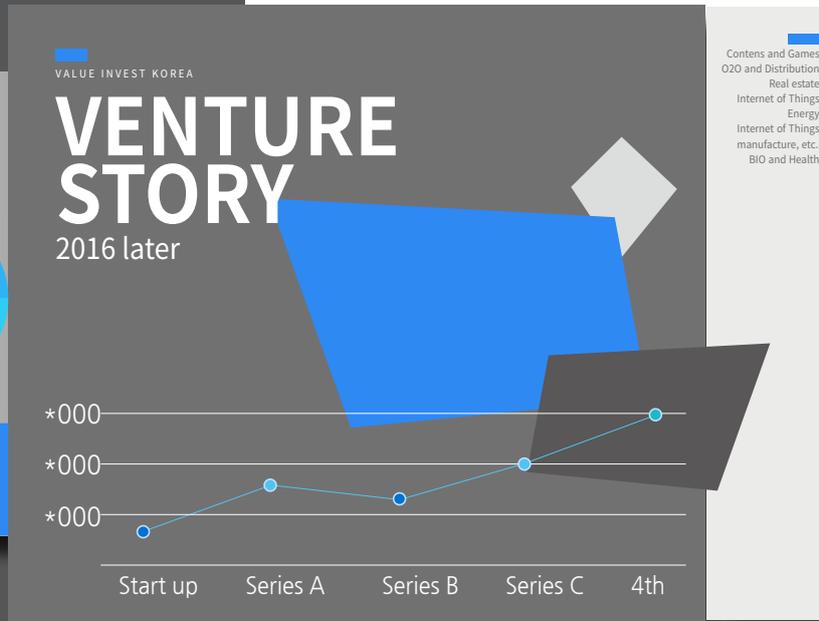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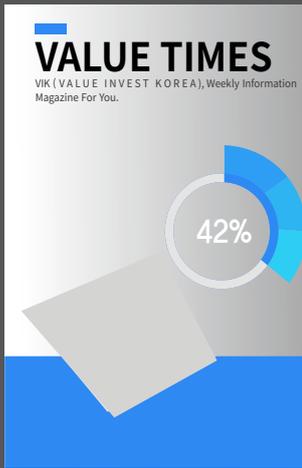
美현지법인 설립 위해 약 11억원 출자

■ 美현지법인 설립 위해 약 11억원 출자

- 2019.01.15 공시사항
- 의료기기 생산·판매를 위한 미국 현지법인을 설립을 위한 11억2140만원 출자
 - 아스타 US Inc.의 지분 100%(100만주) 보유
- 미국 현지법인 설립 이유
 -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 및 현지 사업에 대한 신속 대응
- 미국 법인 주요 사업 목적
 - 제품의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 절차 추진
 - 기술 이전에 따른 라이선스 계약·관리
 - 제품 마케팅
 - 투자·현지시장 조사

VALUE INVEST KOREA VENTURE STORY

제73회 2019.01.16



● ‘벤처 투자 사상 최대’... 차세대 유니콘을 찾아라



유니콘 기업

유니콘 기업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원)를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을 말한다. 머리에 뿔이 난 전설 속의 동물 '유니콘'처럼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뜻을 갖고 있다. 미국의 우버·에어비앤비·스냅챗 등이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이다.

‘벤처 투자 사상 최대’

차세대 유니콘을 찾아라

- 토스·배민, 기업가치 1조원 돌파…새 성공 신화 나오려면 ‘규제 재정비’ 필수
- 토스
2015년 2월 간편 송금 서비스로 출발한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는 계좌·카드·신용·보험 등 조회 서비스, 입출금계좌·적금·대출 등 banking 서비스, P2P·펀드·해외주식 등 투자 서비스 기능을 더하며 2018년 11월 누적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출시 후 누적 송금액은 28조원에 달했고 매출도 2016년 35억원에서 2018년 예상치 약 560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급성장했고 ‘토스’ 출시 이후 간편 송금의 한 획을 그은 비바리퍼블리카는 이제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
- 우아한형제들
2018년 12월 21일 힐하우스캐피탈·세쿼이어캐피탈·싱가포르투자청(GIC) 등으로부터 총 3억2000만 달러(약 3611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으며이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3조원으로 인정받았음.
-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창업자에게 지분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스타트업은 성장을 위해 외부 자금을 끌어오면 창업자의 의결권이 희석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해 기존 사업 구조를 흔들지 말자는 의견